

간몬 해협 뮤지엄

간몬 해협 뮤지엄은 눈앞에 펼쳐지는 중요한 바닷길 ‘간몬 해협’의 과거와 현재를 오감으로 즐기는 최첨단 체험형 시설입니다. 뮤지엄은 2003 년에 설립되었으나 2019 년에 대규모 개보수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했습니다. 출항 직전의 거대한 배처럼 생긴 건물로 호화 여객선과 근미래적인 우주선을 연상시킵니다. 영상과 음성을 사용한 체험형 전시는 관람객들을 탐험 여행으로 데려갑니다.

프롬나드 텍에서 바라보는 절경

뮤지엄은 호화 여객선 4 층의 넓고 밝은 프롬나드 텍 라운지에서 시작하며 위에서 아래로 가며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프롬나드 텍은 호화 여객선의 전망 라운지 같은 구조로 바닥부터 천장까지 있는 커다란 창문과 가죽 소파, 카페가 있으며 아래를 오가는 컨테이너선과 페리, 순시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벽에는 왕년의 호화 여객선의 복제 사진이 걸려 있으며, 1934 년에 가모마루의 2 등 흡연실에서 체스를 두는 승객, 동쪽의 뉴욕으로 힘차게 증기를 뿜으며 나아가는 리스본마루 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협 아트리움

4 층에서 향하는 중앙 전시 구역 ‘해협 아트리움’은 매우 볼만합니다. 2 층에서 4 층까지 트여 있는 아트리움의 중앙에는 일본에서 손꼽히는 초대형 스크린(세로 9m×가로 18m)이 있으며, 간몬 해협의 역사와 해협의 드라마가 박력 있는 영상으로 펼쳐집니다. 8 분짜리 영상들은 『간몬 해협의 하루』, 『빛과 음악의 바다』, 『옛날과 오늘날의 간몬 해협 그림 두루마리』, 『모지 항구 이야기』 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4 층에서 2 층까지의 갤러리는 나선형 통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로의 안쪽 벽에는 터치스크린이 진열되어 있으며,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물고기 퀴즈』와 유명한 검사들의 결투를 모티브로 한 『역할놀이 간류지마 섬의 결투』 등의 게임을 즐기며 놀 수 있습니다. 잠수함을 조종해 해양생물의 사진을 찍어 기념품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게임도 있습니다. 티켓 앞면에 있는 QR 코드를 사용하면 언어를 지정하거나 게임의 옵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해협 역사 회랑

3층의 해협 역사 회랑에서는 일본과 체코를 대표하는 10명의 아티스트의 독창적인 디오라마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간몬 해협에 얽힌 전설과 중요한 전투, 역사적인 장면 등을 인형으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전시는 신화에 나오는 진구 황후(서기 200년대), 가톨릭 선교사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1506~1552), 검술의 달인이었던 미야모토 무사시(1584~1645), 훌륭한 의사이자 식물학자였던 필리프 프란츠 폰 지볼트(1796~1866) 등 다양한 역사적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고명한 불승인 구카이의 806년 도노우에야마 산 참배,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간몬 해협에서의 조난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을 주제로 한 작품도 있습니다. 한국어로 된 설명 패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습존에서 재미있게 체험 학습

2층의 ‘해협 체험존’에서는 해협을 안전하고 활기찬 바닷길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체험형 게임과 전시를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크레인 체험’과 ‘간몬 다이버’ 등과 같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선장과 해상보안관, 잠수사 등과 같은 해협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창가의 ‘선박 검색’ 패널을 통해서선 버튼을 조작하는 것만으로 해협을 항행하는 선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트로 거리를 통해 시간 여행

1층과 2층에 있는 ‘해협 레트로 거리’에서는 1890년대부터 1920년대에 걸쳐 번영했던 모지 항구의 당시 거리가 재현되어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선명한 정경은 그 시절 그 장소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재현된 풍요로우면서 국제적인 마을에서는 노면 전차가 달리고 있고, 모지 항구의 명물인 바나나 장수가 손님과 담소를 나누며, 중산모나 헌팅캡을 일본 전통 의상에 맞춰 입은 남자들이 서 있습니다. 2층에는 옛날 사진과 지도, 일용품 등이 전시되어 있어 과거의 생활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연결하는 긴 복도에서는 마찬가지로 시간이 멈춘 듯한 가게와 레스토랑을 볼 수 있습니다.

레트로 거리의 한구석에는 모지 항구 바나나 자료실이 있습니다. 1899년 모지에서 있었던 해외 무역의 엄청난 호황과 지금도 항구에서 이뤄지고 있는 화려하고 떠들썩한 바나나 경매(다타키우리) 문화가 상세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